

그래프로 보는 세계농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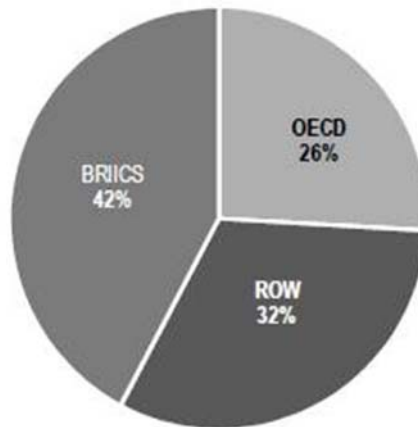
UN은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 등 지구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산림의 역할과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우고, 산림을 통한 빈곤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FM,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에 대한 정책적인 관심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2011년을 ‘세계 산림의 해’로 지정하였다. 그리하여 세계 각국의 산림관련 단체들은 교육과 참여활동을 통하여 어린이, 청소년 등 미래세대가 숲의 소중함을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 5월에 발표된 OECD의 ‘녹색성장을 향해(Towards Green Growth: Monitoring Progress)’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산림면적은 약 40억 헥타르로 전체 국토면적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3분의 2는 산림이 풍부한 10개 국가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산림은 농업이나 도시에서 활용되는 곳을 제외한 곳을 의미한다. 지난 50년 동안 OECD국가에서는 산림면적이 약간 증가하거나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전 세계적으로는 농축산업을 위한 토지개발과 벌채 등으로 산림면적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리하여 이번 달 그래프로 보는 세계농업에서는 ‘세계 산림의 해’를 맞이하여 OECD와 BRICS국가들의 산림면적비율과 인구당 산림면적을 살펴보았다.

그림 1 전 세계 산림면적 중 국가별 비율(2008년 기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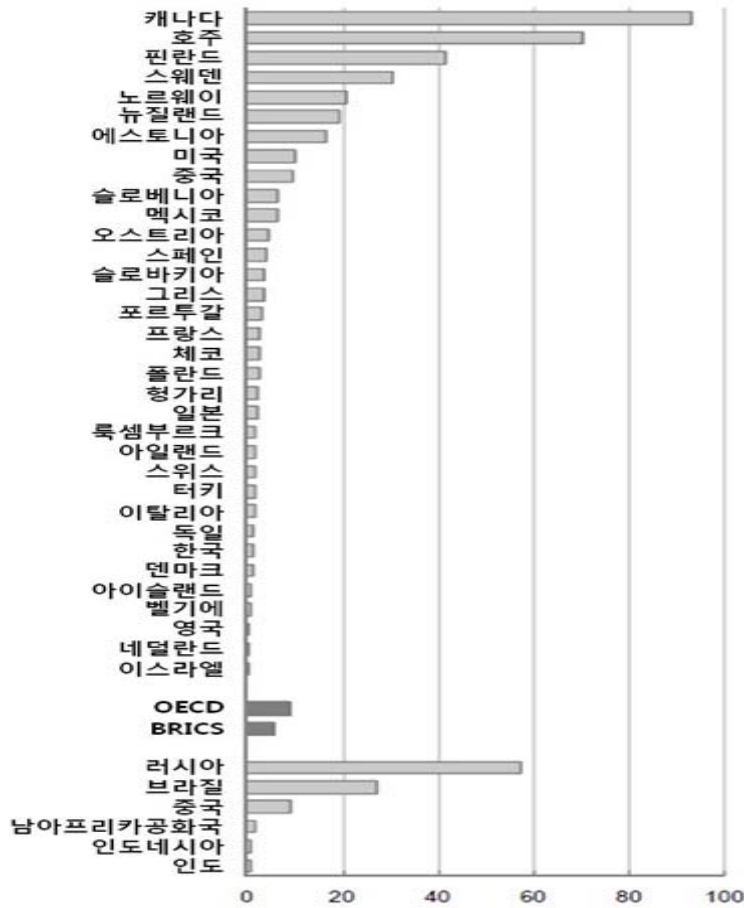


자료: OECD, "TOWARDS GREEN GROWTH: MONITORING PROGRESS".

<그림 1>은 전 세계 산림면적 중 OECD, BRICS국가와 나머지 국가들의 산림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BRICS국가들의 산림면적이 42%, OECD국가는 26%로 나타났다. <그림 2>는 OECD, BRICS국가들의 인구당 산림면적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2 OECD, BRICS 국가들의 인구당 산림면적(2008년 기준)

단위: km²/천명



자료: OECD, "TOWARDS GREEN GROWTH: MONITORING PROGRESS".

OECD 국가 중 산림면적이 가장 넓은 국가는 캐나다로 인구 천명당 약 93.1km²에 달했고 호주(70.3km²), 핀란드(41.7km²), 스웨덴(30.6km²), 노르웨이(20km²), 뉴질랜드(19.4 km²), 에스토니아(16.6km²), 미국(10.0km²) 등은 상대적으로 산림면적이 넓은 국가로 나타났다. 반면 OECD 국가의 평균인 8.6km²에도 미치지 못하는 국가들은 이스라엘 (0.2km²), 네덜란드(0.2km²), 영국(0.5km²), 벨기에(0.6km²), 아이슬란드(0.9km²), 덴마크(1.0 km²), 한국(1.3km²)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은 국토면적에서 산림이 차지하는 비율

이 2008년을 기준으로 OECD 국가에서 4번째로 높은 64.3%임에도 불구하고 인구 천명당 산림면적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BRICS국가 중 러시아(57.2km²)와 브라질(27.3km²)은 인구당 산림면적이 넓은 국가로 나타났으며, 중국(8.9km²), 남아프리카공화국(1.9km²), 인도네시아(0.7km²), 인도(0.6km²)가 그 뒤를 이었다.

참고자료

OECD, "TOWARDS GREEN GROWTH: MONITORING PROGRESS".

산림청, "2011 세계산림의 해 보도자료".

작성자: 윤종열, 이정희.